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연구동향: 1999~2021년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이영희* · 구유진** · 현영섭*** (경북대)

■ 요약 ■

본 연구는 국내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논문 108편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물 특성, 연구방법, 연구내용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1기(1999년-2004년)는 10편의 논문이 게재되면서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학문적 관심기이다. 2기(2005년-2013년)는 41편 논문이 게재되었고, 평생교육과 경영이 더 가까워지는 시기이다. 3기(2014년-2021년)는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절반 이상이 게재되면서, 연구의 확대·발전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연구나 문헌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기관은 논문의 75% 이상이 공공평생교육기관에 집중되었으며, 민간평생교육기관은 8편에 불과하였다. 넷째, 연구내용은 1기에는 평생학습 지원체제, 프로그래밍, 계획 및 전략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2기에는 마케팅, 평가 등의 경영요소가 확대·적용되었다. 3기는 평생교육, 복지, 지원체제, 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과의 결합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주제어] 평생교육경영, 연구동향, 국내 학술지

* 제1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lyhee0917@hanmail.net

** 제2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g-uyu@naver.com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yshyun@knu.ac.kr

I. 서론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는 교육혁신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평생교육법 제정,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1999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각종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평생교육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성인의 10명 중 3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9년 4,295개, 2020년 4,541개, 2021년 4,493개,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지만,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학습자 수도 비록 2021년은 20,677,768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0년은 24,397,282명으로 2019년(16,348,842명)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평생교육기관의 수와 규모의 확대는 경쟁 심화, 시장 규모 확대, 학습자의 요구 다양화 등을 발생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평생교육기관도 교육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이익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김희동, 2011). 이러한 관심은 평생교육에 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의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현영섭, 권대봉, 2007).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평생교육기관의 규모 확대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 평생교육기관의 경쟁 가속화에 따른 차별화 전략 강구,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적 지원의 한계,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학습자의 다원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오혁진, 2021; 김동일, 2021)으로 인해 기관의 목적과 생존을 위하여 경영은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이에 평생교육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경영학의 원리와 연구를 적용하고, 평생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물들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평생교육경영에 관한 연구는 1999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적 과제(신태진, 1999)를 시작으로 20여 년 전부터 보고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교육행정 또는 평생교육행정의 용어로 쓰였다. 평생교육행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규에 따라 제반 조건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활동(남정걸, 1993)이라는 점에서 법과 제도가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관련 연구들은 행정적 측면에서 이러닝 정책 제도, 투자확대정책 분석, 대학평생교육원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보완, 재정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경영이 단지 기업 운영의 범위를 넘어서 조직(organization)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확대·사용되면서 학교경영, 기관경영, 평생교육기관경영 등의 용어도 등장하게 되었다. 비록 평생교육기관경영 또는 평생교육경영의 용어에는 경영활동이 행사되는 대상은 다르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또는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원리를 적용한 경영과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경영전략분석(이장익, 2006), 평생학습관 운영 비용(한석근, 2014), 평생교육기관 평가(강훈, 한상훈, 2017), 프로그램 공급패턴(김두영, 이상진, 김호연, 2018), 교육마케팅, 관계마케팅, 교육서비스 등의 마케팅 전략(변정현, 2006; 신은경, 이홍석, 현영섭, 2010; 현영섭, 김경희, 2008), 평생교육기관의 경영변화(현영섭, 권대봉, 2007) 등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의 축척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영학을 평생교육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 경영학의 연구를 활용하는데 어떠한 원리와 방향, 영역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즉,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방향과 영역에 대한 전체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경영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경영을 어떠한 범주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떠한 연구들이 해당되는지 판단 여부가 모호하였다. 예를 들어 경영프로세스의 창시자인 Fayol(1949)은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Courtenay(1990)는 Fayol의 5가지 경영요소에 철학·사명, 목적·목표, 마케팅·홍보를 추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오혁진(2002)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프로 그래밍, 인사관리, 재무 및 시설관리, 마케팅을 평생교육기관 경영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만표(2003)는 경영시스템 요소를 경영조직, 시설, 운영, 인적자원개발(HRD), 학습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평생교육경영의 분석틀로 평생교육의 과제, 경영기능, 평생교육 환경을 제시한 국외 연구(Smith & Offerman, 1989)는 존재하지만,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핵심 영역에 대한 구분조차 다양하고 또 경영학과는 다르게 구분되는 등 일관성 또는 전체적인 조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까지 수행된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물의 특징을 정리하고 평생교육경영 영역 자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경향 중에 분석대상이 되는 평생교육기관의 연구동향을 유형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크게는 공공과 민간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어느 유형에 속하

느냐에 따라 경영의 목적이나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오혁진, 2021). 따라서 경영기법을 적용하는데 기관의 경영체제 특성이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간기관 일수록 학습자의 위상이 높고 자립을 위한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평생교육 실천 현장에서 공공보다는 민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지 연구대상기관별 차이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내용의 주된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면서 연구내용의 핵심인 연구주제도 확장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주제가 연구되었고, 또 연구가 부족한 주제는 무엇인지, 평생교육 측면에서 요구되는 연구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정기수, 2009; 최나영, 신정원, 고용수, 2021). 따라서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연구주제를 파악하여 시기별로 관심을 받은 주제는 무엇이고, 연구의 경향은 어떠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오혁진, 2002; 이만표, 2003; 이장익; 2006; 현영섭, 권대봉, 2007).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연구된 평생교육경영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108편을 수집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술지 게재논문은 최신성이 반영되고 학문적 관심사, 변화, 발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심은비, 현영섭, 2020)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평생교육 영역에 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또 이를 위한 평생교육학 영역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평생교육학과 경영학의 차이에 의한 학문영역의 차이와 이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연구의 부재, 연구방법의 연구대상기관, 연구내용의 연구주제 등에 대한 향후의 연구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동향 분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경영 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분석하여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연구동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연구물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연구방법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연구내용 특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경영의 개념

평생교육경영은 ‘평생교육’과 ‘경영’의 두 개념을 연결 및 통합하는 것이다(강혜정 외, 2021). 다만 경영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넓게는 행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Bateman & Snell, 2002; Drucker, 1995; Gilley & Eggland, 1992). 따라서 최근까지 평생교육경영은 평생교육행정과 혼동되어 쓰이며 다소 애매한 의미를 지닌다(오혁진, 2021). 비록 평생교육행정이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을 일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법규에 따라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리하고 지원·관리하는 행위(남정걸, 1993)라는 점에서 경영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경영은 법규나 행정적 절차보다는 조직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Kotler & Fox, 1995). 이러한 경영의 개념을 평생교육 분야에 학문적으로 수용하게 된 이유도 기존 평생교육행정이 법이나 규정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현영섭, 권대봉, 2007).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경영 관련 국내 논문과 저서(〈표 1〉 참조)를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경영 중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영하

〈표 1〉 평생교육경영의 개념

연구자	내용
현영섭, 권대봉(2007)	평생교육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지원활용, 교육프로그램, 조직, 직원 등에 대한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리딩(leading), 통제(controlling)의 제반 활동
권두승, 최운실(2014)	평생교육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계획(plan), 실행(do), 평가(see)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향란(2015)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애의 어느 단계 혹은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이 추구하는 학습을 지원·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직화된 노력
이길현(2016)	경영자가 평생교육기관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결정하며 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동태적 과정
최은수, 배석영(2017)	평생교육 조직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평생교육 환경으로부터 평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기관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
서보준 외(2018)	평생교육기관의 고유한 사명과 기능을 보다 생산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
강혜정 외(2021)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다양한 경영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관리, 전략 등을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종합적인 행위 과정

적 원리를 적용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영’과 평생교육 원리를 조직경영에 적용하는 ‘평생교육 원리에 의한 경영’으로 구분된다(오혁진, 2021).

첫째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관점은 경영학 분야의 기법을 평생교육 분야에 도입하여 평생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비록 평생교육기관으로 한정된 적용이라는 점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강혜정 외, 2021; 권두승, 최은실, 2014; 서보준 외, 2018; 이길현, 2016; 최은수, 배석영, 2017; 현영섭, 권대봉, 2007)는 이 관점을 따르고 있다. 즉 평생교육경영이 평생교육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평생교육 원리에 의한 경영’의 관점은 평생교육의 이론을 조직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조직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학습해야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에 걸친 학습, 자아실현, 상호학습 등 평생교육의 원리에 입각한 경영을 의미한다(오혁진, 2021). 같은 맥락에서 이향란(2015)도 평생교육경영을 사회 모든 구성원의 학습을 지원·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어떠한 관점이든 평생교육경영은 효과적인 평생교육 조직을 만들고 성공적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더욱 필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기법과 평생에 걸친 인간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중시하는 평생교육의 원리가 서로 통합된(오혁진, 2021; Gilley & Egglund, 1992) 평생교육경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경영을 조직의 목표 달성과 평생교육의 원리를 적용하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한 조직의 인적·물리적·금전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2.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평생교육기관은 협의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며, 광의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시설을 모두 포괄한다(권인탁, 임영희, 2011). 협의의 평생교육기관은 대표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8대 평생교육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유형과 함께, 평생교육기관은 교육형태, 기관의 후원형태, 설립 및 운영 주체와 성격, 소관 부처,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이러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분류를 종합해 보면, 평생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분류할지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차원에서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생교육경영 관련 선행연구(이장익, 2006; 정민승, 최운실, 2007)를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 실태 준거에 따라 개발되거나 구획되었다(〈표 2〉 참조). 특히 2개의 공공평생교육기관과 민간평생교육기관으로 대분류한 것은 경영의 목적이나 방식의 차이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정에서 공공기관은 기획·통제·지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기관은 자율·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평생교육기관일수록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의 관점에 따라 연구대상의 기관을 공공평생교육기관과 민간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 평생교육기관	학교형 평생교육기관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3대 전담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시·군·구 평생학습관)
		공공인력개발기관(공무원연수원 등)
	복합형 평생교육기관	시·군·구 구민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여성 및 노인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및 박물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민간 평생교육기관	비영리형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영리형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민간단체주도형		전문학원(기술 및 전문영역)
종교 및 문화기관주도형		사이버교육기관
기업주도형	민간산업교육기관 및 기업체 연수원	

출처: 정민승, 최운실(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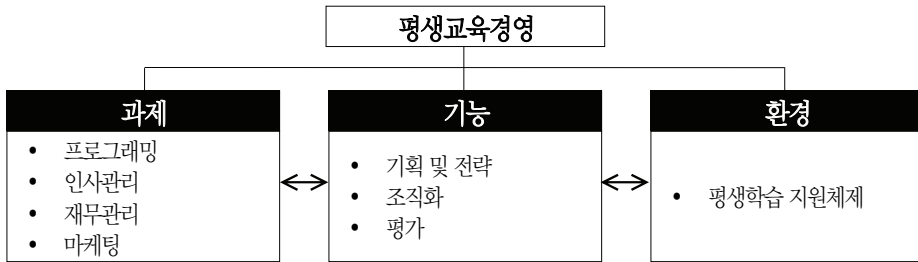
3. 평생교육경영의 구성요소

평생교육경영의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경영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경영을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종합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렵고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학계의 합의된 분류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또 연구자마다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혁진(2021)은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과제별 구성요소인 프로그래밍,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이 각각 경영의 과정별 구성요소인 기획, 조직화, 충원, 지도, 조정에 따라 끊임없이 수행되는 순환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순환과정은 인적 자원, 재무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마케팅 관리, 정보관리를 바탕으로 경영목표 설정(계획)→ 경영자원의 조달과 배분(실행)→ 통제(평가)를 따르는 과정의 순환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프로그래밍, 인사관리, 재무 및 시설관리, 마케팅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영학의 이론과 기법을 평생교육분야 적용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Smith와 Offerman(1989)은 평생교육경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과제, 경영기능, 평생교육 환경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이는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경영학적 이론과 평생교육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첫째, 과제에는 프로그래밍,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이 포함된다. 비록 광범위한 개념이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과 기법이다. 둘째, 기능은 앞에서 언급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따라야 할 공통적인 절차 또는 과정이고, 세부적으로 기획 및 전략, 조직화, 평가로 구성된다. 기능은 말 그대로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여 실행하고, 잘 실행되었는지 측정·평가하는 순환의 특징을 갖는다. 셋째, 환경에는 단위부서, 평생교육기관, 지역사회, 상위의 학습체제가 포함된다. 환경은 모든 조직이 경영행위를 하는 맥락이나 주변 상황을 의미한다(권인탁, 임영희, 2011). 이 중에서 단위부서, 평생교육기관, 지역사회는 많은 사람과 부분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직화와 중복될 가능성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구대상기관과 중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시켰다. 다만 상위의 학습체제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내용적 명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체제로 표현하였다. 이는 국가적으로 구축된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경영활동이 정해지고 행해진다는 점을 부

각하고자 한 표현이다. 즉 외부 환경적 요소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활용할 평생교육경영의 8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 프로그래밍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학습자의 니즈에 맞게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오혁진, 202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평생교육기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재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영상, 2009; Ivy, 2001; Maringe & Foskett, 2002).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의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림 1] 평생교육경영의 구성요소

둘째, 인사관리는 평생교육기관의 구성원(프로그램 개발·운영 실무자,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오혁진, 2021). 최근 조직은 가치 창출을 위하여 구성원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을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적자원관리(권인탁, 임영희, 2011)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기관도 필요한 인적자원을 계획·확보·개발·활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재무관리는 평생교육기관의 예산 및 회계의 관리로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다. 즉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인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비, 홍보비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다(오혁진, 2021). 특히 평생교육기관별 재무관리는 차이를 보이는데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공공 및 비영리평생교육기관은 회계관리 정도의 기능을 한다면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평생교육기관은 기업의 재무관리와 동일하다(김용현 외, 2018).

넷째, 마케팅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요구를 파악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오혁진, 2021). 즉 마케팅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수요와 요구의 분석,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홍보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판매(sales), 광고(advertising), 유통(distribution)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최은수, 배석영, 2017).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에는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획 및 전략은 기관의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기능적 목표와 운영계획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평생교육경영에서 기획은 교육기획과 경영기획으로 나뉘며, 교육기획은 교육 상품의 계획이고, 경영기획은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기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한편, 경영전략은 장기적인 경영활동의 하나이며, 미래에 대응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기관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김동일, 2021).

여섯째, 조직화는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본, 정보 지식 등 경영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오혁진, 2021). 예를 들어 어떤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며, 누가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류할지, 어디에서 의사결정을 할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지호준, 2000). 이를 통해 책임과 권한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할 수 있다(김동일, 2021). 평생교육기관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를 분업화하고 효율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일곱째, 평가는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며,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지표와 관련된다(권인탁, 임영희, 2011). 평생교육 기획의 평가에는 내부요소(프로그램, 인력, 고객, 시설, 재정)와 외부 환경요소(사회경제적 상황, 기관의 상황, 구조적 상황, 내부의 문화적 상황) 등이 포함된다(권인탁, 임영희, 2011; Simerly & Associates, 1987).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에는 프로그램의 성과, 가치, 효과를 판단하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결과 등이 포함된다(김소현, 김진화, 2008). 따라서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재의 활동이 잘 수행되는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여덟째, 평생학습 지원체제는 평생교육정책과 관련된 평생교육 추진체제(행정조직, 심의 및 협의기구, 전담기구)에 의해 구동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평생교육이 지

원되고 추진되고 있다(강혜정 외, 2021). 세부적으로 대학평생교육체제, 성인문해교육, 국가역량체계, 민간자격제도,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이 있다(강혜정 외, 2021). 이러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안에서 경영의 범위가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고려되었다.

4.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흐름

1999년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평생교육 시장은 확대되고 평생교육기관은 생존을 위해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평생교육경영학’이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과목으로 포함되면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을 위한 이론들과 기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오혁진, 2002). 이 시기는 평생교육기관이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경영을 잘할 것인지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학계에서도 평생교육기관 경영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되었다.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서 제한적이지만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평생학습관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발전방안(오홍석, 2003; 이만표, 2003; 이병준, 2001)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생교육과 다양한 경영요소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연구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평생교육경영 분야의 저서들(권두승, 최운실, 2014; 권인탁, 임영희, 2011; 오혁진, 2021)이 출간되고, 평생교육시장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기관을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라는 시대적·상황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평생교육이 국가적 중요한 투자 영역이 되면서 교육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재정투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연구(김경화, 2005; 김창엽, 성낙돈, 2010; 윤기찬, 박혜영, 2006)가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의 주력 상품인 ‘교육서비스’의 질과 수요 진작을 위해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주목받는 연구주제(변정현, 2006; 신은경, 이홍석, 현영섭, 2010)가 되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과 역량을 분석하는 다양한 경영전략(박응희, 이병준, 2007; 이장익, 2006; 이해정, 최경애, 김세리, 2009)도 제안되었다. 이에 더해서 평생교육기관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자금 확보와 효율적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재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2014년 이후 연구대상 기관 및 연구영역의 확대·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는 2008년 「특수교

육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개념과 교육대상자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연구들(김두영, 이상진, 김호영, 2018; 박은아, 2019; 양인숙 외, 2020)이 등장한 셈이다. 즉 그동안 소외집단, 결함집단으로 대우받아 온 장애인까지 평생교육이 확대되고, 평생교육의 실천 차원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이 경영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올수록 평생교육경영은 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와 통합되어 연구되면서 연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별 연구 흐름과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요소 및 코딩체계

이론적 검토를 통해 평생교육경영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요소 및 코딩체계는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분석영역은 연구물 특성,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구분되었다. 비록 세부적인 분석요소는 동향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3개의 분석영역은 다수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연구물 특성은 표본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연구방법은 자료수집, 분석방법, 연구설계 등 연구방법 표본의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으며, 연구내용은 주제로 다루는 변수나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현영섭, 신은경, 김준희, 2021).

첫째, 연구물 특성은 기본적인 연구물 특성으로 동향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분석요소이다(신은경, 현영섭, 2021, 현영섭, 신은경, 김준희, 2021). 본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의 게재연도와 학술지의 학문영역을 연구물 특성에 포함하였다. 학문영역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 분야를 의미하며, 평생교육학, 일반교육학, 비교교육학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평생교육학에는 평생교육학연구, *Andragogy Today*, 평생학습사회, 평생교육·HRD연구, HRD연구, 산업교육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등 8개의 학술지가 포함되었다. 일반교육학에는 열린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종합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예술교육연

구 등 25개가 포함되었다. 비교육학에는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경영사학, 재활복지,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e-비즈니스 연구, 외식경영연구 등 27개가 포함되었다.

〈표 3〉 분석틀

분석영역	분석요소	내용 및 코딩체계
연구물 특성	게재연도	학술지 게재연도
	학술지 분야	1: 평생교육학, 2: 일반교육학, 3: 비교육학
연구방법	연구대상기관	1: 공공평생교육기관, 2: 민간평생교육기관, 3: 혼합기관, 99: 미해당, 0: 미제시
	분석방법	1: 양적연구, 2: 질적연구, 3: 문헌연구, 4: 혼합연구
연구내용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	1: 프로그래밍, 2: 재무관리, 3: 인사관리, 4: 마케팅, 5: 기획 및 전략, 6: 조직화, 7: 평가, 8: 평생학습 지원체제, 9: 기타

둘째, 연구방법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동향 연구에서 연구방법 특징으로 연구대상 표본이나 분석방법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현영섭, 신은경, 김준희, 2021). 본 연구는 연구방법의 분석요소로 연구대상기관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기관의 유형은 공공평생교육기관, 민간평생교육기관,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동시한 연구한 혼합기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존 동향 연구에서 다수 활용된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방법이며, 질적연구는 면담이나 관찰 등을 통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문헌연구는 문헌으로 사례 및 이론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혼합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다.

셋째, 연구내용은 논문의 연구주제나 관점이다. 특히 주제어는 분석대상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내용이나 주제어면서 연구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나 구로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시한 표현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에서 주제어 395개를 평생교육경영의 9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그림 11 참조).

2. 분석논문 수집 및 현황

평생교육경영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검색을 위한 검색어는 평생교육경영의 개념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기초로 선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자료검색엔진(RISS)을 활용하여 2022년 1월 9일 기준으로 제목, 주제어, 초록에 ‘평생교육경영’,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기관 경영’, ‘평생교육기관 운영’, ‘평생교육마케팅’, ‘평생교육기관마케팅’, ‘평생교육행정’, ‘평생교육기관행정’, ‘평생교육평가’, ‘평생교육기관평가’가 포함된 학술지 게재논문을 검색하였다. 또한 검색과정에서 게재연도, 검색분야, 학술지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1차 검색을 통하여 3,00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차로 중복 자료 1,669편을 제거한 후에 제목 및 초록을 기준으로 평생교육경영과 무관한 논문으로 판단되는 1,556편도 제외되었다. 이후 113편의 논문 중 연구보고서, 원본이 없는 논문 5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논문은 총 108편이 선정되었다. 또한 연구내용 분석을 위한 주제어는 전체 108편의 424개이지만, 연구방법과 관련된 주제어는 중복된다는 점에서 29개를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델파이조사, 면담 조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395개의 주제어가 선정되었다.

〈표 4〉 게재연도별 분석논문 현황

게재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1	0	2	1	6	0	3	8	6	3	5	4
%	0.9	0.0	1.9	0.9	5.6	0.0	2.8	7.4	5.6	2.8	4.6	3.7
게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빈도	6	5	1	5	12	2	10	6	8	5	9	108
%	5.6	4.6	0.9	4.6	11.1	1.9	9.3	5.6	7.4	4.6	8.3	100.0

분석대상 논문의 게재연도별 논문 빈도 및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국내 평생교육경영 관련 논문은 1999년을 시작으로 게재되었고, 비록 2000년과 2004년에 연구된 논문은 없었지만 2021년까지 꾸준히 논문이 게재되었다. 분석대상 논문 중 2010년 이전 게재가 32.3%, 2010년 이후 게재가 67.7%로, 2010년 이후 다수의 논문이 집중되었으며 최근일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문영역별로는 평생교육학 42편(38.9%), 일반교육학 36편(33.3%), 비교육학 30편(27.8%)이 게재되었다(〈표 5〉 참조). 비록 평생교육학에서 가장 높은 게재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교육학과 비교육학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 학문영역별 분석논문 현황

학문영역	평생교육학	일반교육학	비교교육학
빈도	42	36	30
%	38.9	33.3	27.8

〈표 6〉 학술지별 분석논문 현황

학술지	빈도	%	학술지	빈도	%
평생교육학연구	20	19.0	교육행정학연구	2	1.9
Andragogy Today	7	6.5	예술교육연구	2	1.9
열린교육연구	5	4.6	장애인고등교육연구	2	1.9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4	3.7	재활복지연구	2	1.9
평생교육·HRD 연구	4	3.7	특수교육연구	2	1.9
HRD 연구	3	2.8	한국교육	2	1.9
평생학습사회	3	2.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	1.9
교육연구	2	1.9	그 외 44개	44	40.7
교육종합연구	2	1.9	합계	108	100.0

학술지별로 분석대상 논문의 현황을 보면, 총 60개(평생교육학 8개, 일반교육학 25개, 비교교육학 27개)의 학술지가 포함되었다(〈표 6〉 참조). 2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 16개의 64편(59.3%)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평생교육학 학술지 5개 37편(34.2%), 일반교육학 학술지 7개 17편(15.7%), 비교교육학 학술지 4개 10편(9.3%)이었다. 1편 이하의 학술지는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평생교육학 3편(2.8%), 일반교육학 18편(16.7%), 비교교육학 23편(21.3%)이었다. 학술지별로 분석논문의 빈도는 평생교육학연구 20편(19.0%), Andragogy Today 7편(6.5%), 열린교육연구 5편(4.6%),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평생교육·HRD 연구가 각각 4편(3.7%), HRD연구, 평생학습사회 각각 3편(2.8%) 순이었다. 빈도가 높은 7개의 학술지 게재논문은 분석대상 논문의 43.1%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교육연구, 교육종합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예술교육연구, 장애인고등교육연구, 재활복지연구, 특수교육연구, 한국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각각 2편(1.9%)이며, 1편씩만 게재된 학술지는 44편(40.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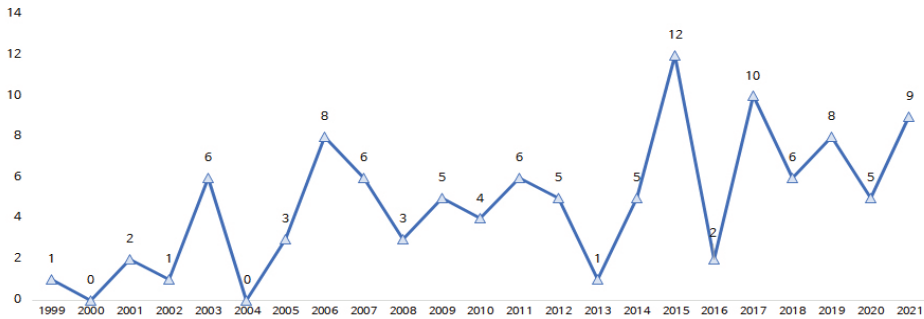
3. 자료 분석 방법

평생교육경영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논문 108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생교육 경영 관련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분석 및 분류화 등의 코딩 작업을 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여 코딩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더 간 일치(inter-coder agreement) 절차를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중 무작위로 10% 선정한 후에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분석틀에 따른 코딩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문가 2인은 평생교육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박사 경력 10년 이상 및 교수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이며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선정하였다. 전문가에게 연구목적, 연구설계, 코딩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대상 논문의 10%에 해당하는 1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코딩을 요청하였다. 코딩 이후 비율 분석에서 두 전문가의 일치율은 91.8%로 우수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코딩 후에는 SPSS 21.0 한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MS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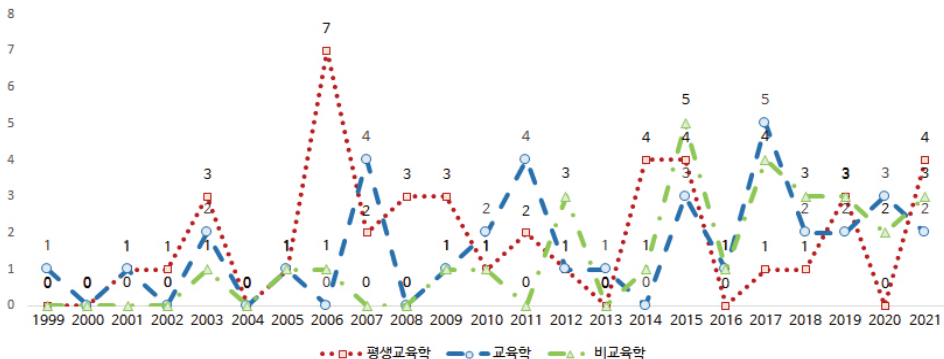
1. 연구문제1: 연구물 특성의 분석결과

계재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분포는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1999년부터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2021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다만 2004년, 2013, 2016년에는 게재논문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다음 연도에는 3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논문 편수는 2015년 12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연구 초기인 2004년까지 논문이 10편(9.3%), 2013년까지 논문이 41편(37.9%), 2021년까지 논문이 57편(52.8%)이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7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50% 이상은 최근 7년 동안 게재되었다.



[그림 2] 게재연도별 논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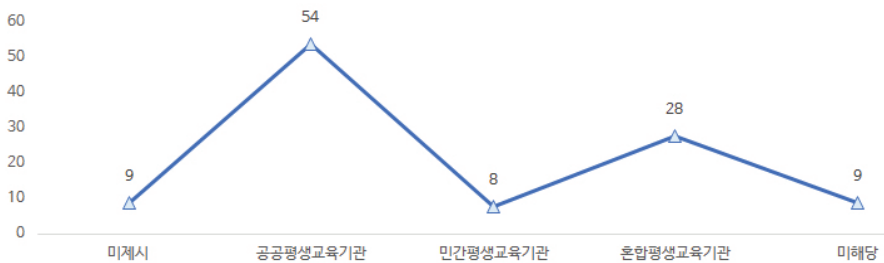
다음으로 게재연도별 학문영역의 논문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1〉, [그림 3] 참조).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학 분야의 논문이 많았지만 2012년 전후로 비교해 보면 2012년 이전의 게재논문은 평생교육학 24편(22.2%), 일반교육학 16편(14.8%), 비교교육학 5편(4.6%)이며 2012년 이후의 게재논문은 평생교육학 18편(16.7%), 일반교육학 20편(18.5%), 비교교육학 25편(23.2%)이었다. 즉, 최근 10년 동안에 평생교육학 논문은 감소하였으나, 일반교육학, 비교교육학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비교교육학 게재논문의 80% 이상이 최근 10년 동안 게재되었다. 즉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논문은 교육학에서 선두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이후 경영학의 이론들이 평생교육기관에 적용되면서 평생교육학 분야의 연구로 이어졌다.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비교교육학 영역의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는 교육학과 평생교육학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교교육학에서도 조명되고 연구되는 추세였다.



[그림 3] 게재연도별 학문영역 논문 빈도

2. 연구문제2: 연구방법 특장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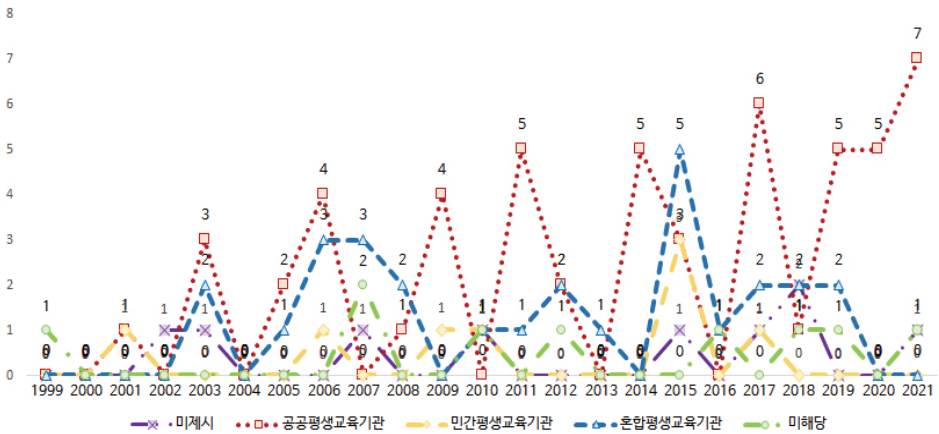
연구방법 특징으로 연구대상기관과 분석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관별 논문 빈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 참조), 공공평생교육기관 54편(50.0%), 혼합평생교육기관 28편(25.9%), 민간평생교육기관 8편(7.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더욱이 혼합평생교육기관이 공공과 민간을 동시에 연구했다는 점에서 혼합평생교육기관의 28편까지 합치면 공공평생교육기관이 전체 연구의 75% 이상 차지하였다. 한편 미제시가 9편(8.3%)으로 적지 않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구대상의 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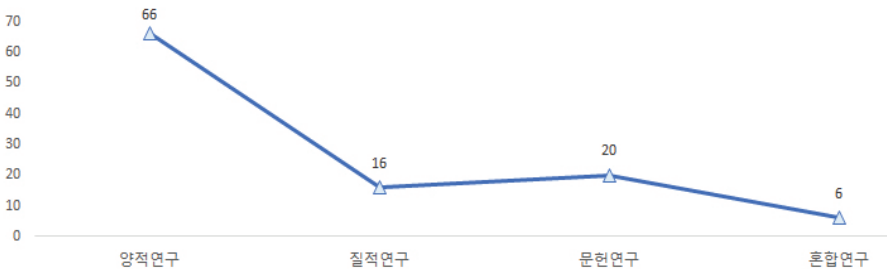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대상기관 논문 빈도

계재연도별 연구대상기관 유형의 논문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2), [그림 5 참조]. 공공평생교육기관 대상의 계재논문은 2003년 3편, 2011년 5편, 2017년 6편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1년 7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민간평생교육기관의 경우 3편이 게재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연구가 수행되지 않거나 1편에 불과하였으며, 최근 4년 동안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혼합평생교육기관의 경우 2003년 1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민간평생교육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그림 6 참조), 양적연구가 66편(61.1%), 문헌연구가 20편(18.5%), 질적연구가 16편(14.8%),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사용한 혼합연구는 6편(5.6%)이 게재되었다. 따라서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는 양적연구의 활용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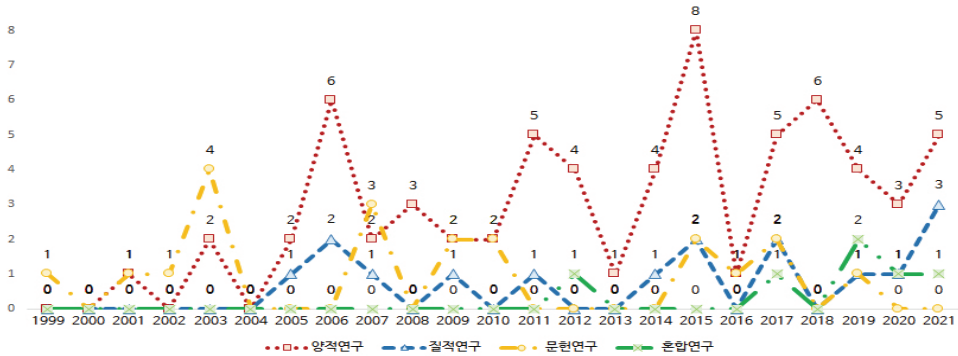


[그림 5] 게재연도별 연구대상기관 논문 빈도



[그림 6] 연구방법 논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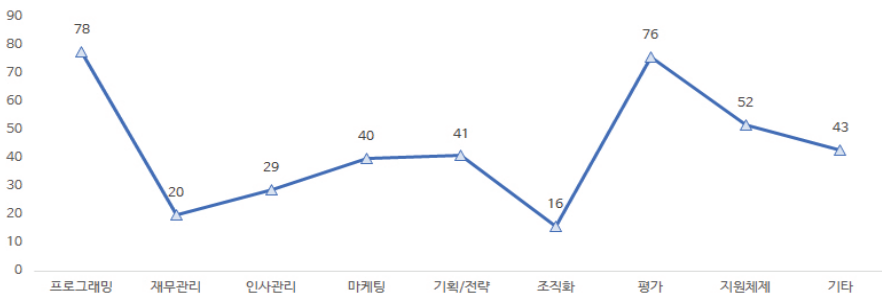
게재연도별 연구방법의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3), [그림 7 참조]. 분석결과를 보면, 양적 연구는 2015년 8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양적연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까지도 이 경향은 유지되고 있었다. 질적연구는 2004년 이후 매년 한두 편씩 연구가 수행되었다. 초기에는 이론적 토대를 모색할 수 있는 사례나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3년에는 4편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최근에 오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혼합연구는 2011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오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7] 게재연도별 연구방법 논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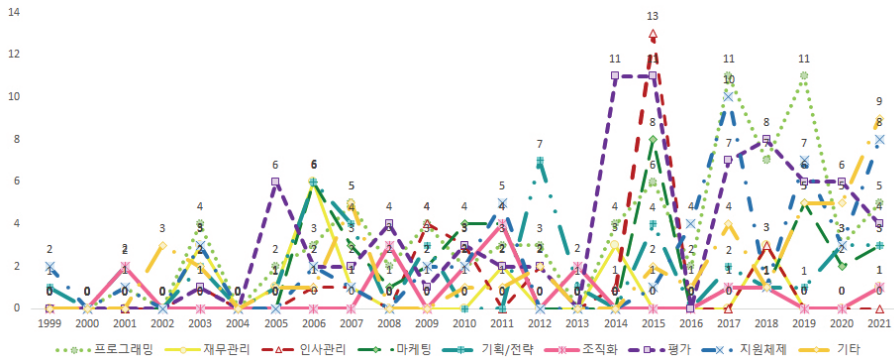
3. 연구문제3: 연구내용 특징의 분석결과

연구내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경영의 구성요소는 기타를 포함하여 9개로 구분하고 연구의 핵심 내용인 총 395개 주제어에 대해 빈도를 분석하였다(그림 8 참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래밍이 78건(19.7%), 평가가 76건(19.2%)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평생학습 지원체제 52건(13.2%), 기획 및 전략 41건(10.4%), 마케팅 40건(10.1%), 인사관리 29건(7.3%), 재무관리 20건(5.1%), 조직화 16건(4.1%) 순이었다. 기타는 43건(10.9%)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평가, 평생학습 지원체제 중심의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마케팅, 기획 및 전략 주제의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 재무관리, 인사관리, 조직화의 연구주제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 중에 프로그래밍과 평가가 학문적으로 많이 논의된 주제로 나타났다.



[그림 8]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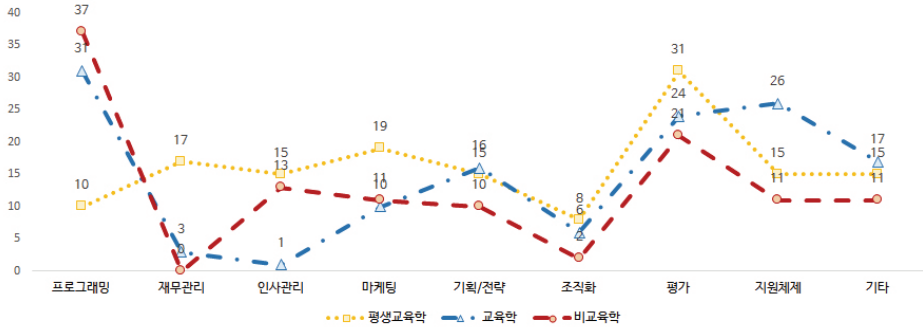
다음으로 게재연도별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의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5), [그림 9] 참조). 연도별로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흐름에 따라 초기라 할 수 있는 1기는 1999년부터 2004년이고, 본격적으로 평생교육경영의 연구주제가 다양화된 2기는 2005년부터 2013년이고, 연구대상 기관, 연구영역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3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그림 9] 게재연도별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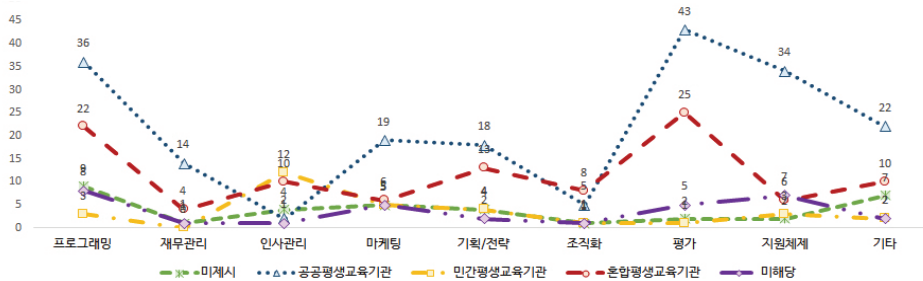
1기는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주요 연구주제가 평생학습 지원체제 6건(1.6%), 프로그램 5건(1.3%), 기획 및 전략 5건(1.3%)이었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2기의 주요 연구주제는 프로그램 24건(6.2%), 평가와 기획 및 전략이 각각 22건(5.7%), 마케팅 20건(5.1%)이었다. 1기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전략에서 마케팅, 평가 등으로 연구주제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평가, 학습성과, 사업성과, 평가 시스템 개발, 교육서비스마케팅, 내부마케팅 등이 다루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경영 요소들이 평생교육과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3기에는 평가 53건(13.4%), 프로그램 44건(11.1%), 평생학습 지원체제 34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에 관한 연구는 2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마케팅, 기획 및 전략에 대한 연구주제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다. 비록 인사관리는 2015년 반짝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오히려 조직화, 재무관리와 함께 연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 기타에는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어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직업인, 소외계층, 경인지역, 경남지역, 충북지역,

코로나19 등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지역 환경, 사회적 환경 등 환경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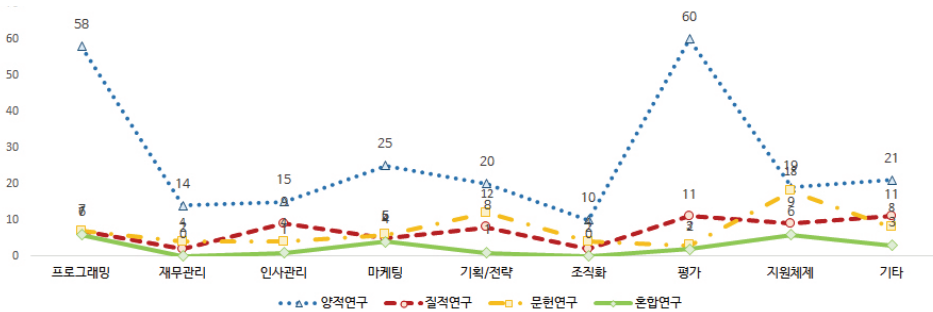
[그림 10] 학문영역과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별 교차분석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와 학문영역을 교차하며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4), [그림 10] 참조). 평생교육학에서 평가 31건(7.8%), 마케팅 19건(4.8%), 재무관리 17건(4.3%), 인사관리 15건(3.8%) 등으로 폭넓게 연구되었으며, 특히 재무관리는 평생교육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다만 프로그래밍은 비교육학 37건(9.4%), 일반교육학 31건(7.8%)으로 비교육학과 일반교육학에서 주로 연구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평생학습 지원체제는 일반교육학 26건(6.6%)으로 연구되었고, 기획 및 전략은 일반교육학 16건(4.1%)과 평생교육학 15건(3.8%)으로 비슷하게 연구되었다.



[그림 11] 연구대상기관과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별 교차분석

다음으로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와 연구대상기관을 교차하며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6〉, [그림 11] 참조). 공공평생교육기관 대상의 경우 프로그래밍 36건(9.1%), 재무관리 14건(3.5%), 마케팅 19건(4.8%), 기획 및 전략 18건(4.5%), 평가 43건(10.9%), 평생학습 지원체제 34건(8.6%)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평생학습 지원체제는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공공평생교육기관과 지원체제의 관계성, 특수성이 반영될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인사관리는 12건(3.0%)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미미하게 더 연구되었다.



[그림 12] 연구방법과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별 교차분석

다음으로 평생교육경영 구성요소와 연구방법을 교차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부록 7〉, [그림 12] 참조). 양적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 60건(15.2%), 프로그래밍 58건(14.7%), 마케팅 25건(6.3%), 기획 및 전략 20건(5.1%), 평생학습 지원체제 19건(4.8%), 인사관리 15건(3.8%), 재무관리 14건(3.5%)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평가 11건(2.8%)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혼합연구는 재무관리, 조직화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프로그래밍,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양적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연구는 프로그램의 공급패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평가는 교육적·경제적 효과성 요인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성과평가, 학습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구분석, 빈도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델파이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한편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연구는 양적연구와 문헌연구를 적용한 비율이 비슷하였다. 특히 문헌연구는 시민대학, 대학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및 발전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평생교육기관에 투입되는 물적·재무적·인적·기술적·정보자원인 경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효과적·효율적 관리방안은 물론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영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로 지난 20여 년간 수행된 평생교육경영과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구 지형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평생교육경영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108편을 수집·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여 년간 증감을 반복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학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평생교육기관을 하나의 경영체로 보기 시작하였다(이만표, 2003). 따라서 평생교육학 분야에 적용된 국외의 경영 이론을 도입·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전과제, 발전방안(권인탁, 2003; 오혁진, 2002; 이병준, 2001) 등이 등장하였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본격적인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연구와 함께 평생교육과 경영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기관과 사업성과, 평생교육기관과 재정,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시장성, 마케팅과 평생교육기관 등 평생교육과 경영의 요소를 연결시킨 연구(김경화, 2005; 변정현, 2006; 신은경, 이홍석, 현영섭, 2010; 이장익, 2006)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경영은 필수적이며 유용한 수단이 되고 평생교육과 경영이 배타적 관계가 아닌 밀접한 관계를 형성(오혁진, 2021)해야 함을 의미한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비록 연구의 증감 폭은 크지만, 전체 게재논문의 절반 이상이 연구되었다. 더불어 최근에 올수록 연구대상자, 연구대상 기관, 연구영역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관련 연구들(김두영, 이상진, 김호연, 2018; 박은아, 2019; 양인숙 외, 2020)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권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교육이 부여되도록 평생교육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는 평생교육학, 특수교육학, 복지학 등 여러 학문 분야가 통합되고 연구의 폭도 넓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연구대상기관은 공공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중에 대

학평생교육기관,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이 주류였다. 반면 한국의 평생교육은 공적 수준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최근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관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자립 경영은 현실적으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평생교육기관의 세부 유형별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9편(8.3%)이었다. 이에 연구대상기관에 관한 정보와 범위, 유형화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질적 서술적 연구나 문헌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실증적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헌연구가 주류였다. 이후 평생교육을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는 평가나 프로그래밍 관련 연구들은 양적연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 계량적 연구인 양적연구와 정성적 연구인 질적연구를 동시에 활용하는 혼합연구가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단일 연구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Creswell & Plano Clark, 2011)이라는 점에서 교육 등 실천 지향적 학문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방법론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명희, 2005). 따라서 연구방법 간의 활용은 균형적인 연구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추천된다.

넷째, 연구내용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연구주제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1기(1999~2004년)의 연구주제는 프로그램 운영, 이러닝 정책, 투자 확대 정책,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이만표, 2003; 이수경, 2001; 최운실, 2003) 등 경영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이와 관련된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위한 교육기획,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경영기획의 중요성(김동일, 2021)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정책을 통한 지원체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기획 및 전략이 상호연계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기(2005~2013년)는 1기의 전통적 연구주제인 프로그래밍, 기획 및 전략과 더불어 마케팅, 평가 등의 경영요소가 확대·적용되었다. 평생교육사업 분야에서 투자를 통한 경제적 효과성

평가, 사업성과, 프로그램 운영·평가, 학습성과, 학습자의 만족도(김경화, 2005; 김창엽, 성낙돈, 2010; 윤기찬, 박혜영, 2006) 등 프로그램의 평가부터 기관의 평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기관의 핵심적인 요소인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사업 분야에서 책무성(accountability), 전문성, 공공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증명하기 위한 평가의 중요성(우수명, 2004; Kettner, 2002; Lewis, et al., 2001)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마케팅 활동이 비영리조직에 응용·수용되면서 2006년부터 평생교육기관에도 적용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관계마케팅, 의례마케팅, 교육마케팅, 내부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연구(변정현, 2006; 신은경, 이홍석, 현영섭, 2010; 정기수, 2009)들에 활용되었다. 이는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관점(변정현, 2006, 오혁진, 2021)을 지지하며 라이징 스타(rising star)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기관의 중복성,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도 주목을 받으며 SWOT 분석(이장익, 2006), 운영체제 전략(이혜정, 최경애, 김세리, 2009), 평생교육 시장분석(박응희, 이병준, 2007) 등이 이루어졌다.

3기(2014~2021년)는 2기에 이어 프로그래밍과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며, 마케팅, 기획 및 전략도 꾸준히 보고되었다. 다만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연구는 평생교육학 영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평생교육기관 수의 급격한 증가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모든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정복임, 2021),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김동위, 2003). 따라서 평생교육학 영역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인사관리, 재무관리, 조직화는 연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재무관리는 조직이 공익성을 강조하든 수익성을 강조하든 필요하며, 자금의 투명한 기획, 예산 및 관리를 통하여 자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Hayatt & Santiago, 1986). 따라서 자금 조달 방안, 재정 운영을 양호하게 이끌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는 최근 확장된 개념으로 인적자원관리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기능과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의 목표 제시까지 포함된 개념이다(김동일, 2021). 이에 기관의 핵심 자원인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추천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직화는 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자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21세기

는 정보와 지식의 획득, 공유, 효율적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평생교육기관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의해 가는 학습조직 원리가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창조적인 조직으로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천된다. 종합하면 재무관리, 인사관리, 조직화 등 좀 더 세부적인 평생교육경영 관련 연구물 축적이 요청된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면,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공급 현황 및 패턴(김두영, 이상진, 김호연, 2018; 박은아, 2019) 등이 연구되었다. 이는 경영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이를 수행하는 교육 제공 인력, 예산 지원 및 운영 구조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양인숙 외, 2020). 따라서 평생교육, 복지, 지원체제, 이에 따른 결과인 경영과의 결합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림 13 참조).

관심기(1999-2004)	밀접기(2005-2013)	결합기(2014-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경영의 학문적 관심기 • 프로그래밍, 기획/전략,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상호연계성 • 문헌연구를 통한 학문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과 경영의 밀접기 • 평가, 마케팅, 인사관리 등 연구주제의 다양화 • 실증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경영, 복지의 결합기 • 연구주제의 활성화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 분야 확대·발전 • 혼합연구방법의 활용

[그림 13]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시기별 특징

이상의 논의 및 결론에 따른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평생교육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민간평생교육기관의 교육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유형(영리형, 비영리형)별로 경영상 차이는 어떠한지 등의 연구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양적연구가 다수여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단일한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도 중요하다. 하지만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등으로 얻어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평생교육과 경영의 다층적·복합적 원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평생교육과 경영의 균형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재무관리, 인사관리, 조직화 등 세부 구성요소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수강료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학습자의 교육에 우선 투자되고, 이는 학습성과와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재무관리인 수입·지출관리, 단위 프로그램 재무관리, 통합적 재무관리, 프로그램 손익계산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적자원의 확보는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람 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를 넘어 인적자원관리의 체계적 접근이 요청된다. 그리고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전 공유 워크숍 개최, 연수 파견 및 연수 내용 공유, 직무능력을 위한 자체 토론회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 수행 관련 평가회 실시, 우수 학습구성원 시상 등이 실천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더불어 조직화의 변화된 양상, 효율적인 조직화 방안, 학습조직화 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추천된다.

넷째 평생교육 영역에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격한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교육서비스 운영에서의 경영 노력은 더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전달하기 위해 평생교육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첫째, 연구결과의 추가적인 확장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을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해외 논문, 등재 및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가능한 모든 경영 관련 검색어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평생교육경영 연구동향을 확장해서 분석하는 것이 추천된다.

둘째, 빈도 중심의 분석으로 평생교육경영 연구물의 세세한 내용을 다루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질적연구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양적연구에 대한 양적 메타분석, 텍스트 네트워크분석, 담론분석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다양하고 심화된 분석의 동향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훈, 한상훈(2017).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 평가모형 개발 연구. 열린교육연구, 25(2), 65-87.
- 강혜정, 이승주, 정진구, 차혜경, 한영수(2021). 뉴노멀, 초연결, 플랫폼시대의 평생교육경영론. 서울: 동문사.
- 고영상(2009).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2), 105-132.
- 교육부(2022).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1월 19일자).
- 권두승, 최운실(2014). 평생교육경영론 2판. 경기도: 교육과학사.
- 권인탁(2003).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대학평생교육원 발전과제. 평생교육학연구, 9(1), 179-209.
- 권인탁, 임영희(2011). 평생교육경영론. 서울: 학지사.
- 김경화(2005). 평생교육기관의 사업성과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4), 365-404.
- 김동일(2021). 평생교육경영론. 서울: 동문사.
- 김동위(2003).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3(1), 23-37.
- 김두영, 이상진, 김호연(2018).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패턴 분석. 재활복지, 22(1), 1-26.
- 김소현, 김진화(2008).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직무 확인 및 타당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4), 271-300.
- 김용현, 성낙돈, 윤여각, 이상오, 정기수, 강무섭, 송병국, 양병찬, 김진한, 김노마, 이정희, 심의보, 하광호, 정찬남 (2018). 평생교육경영론(2판). 경기도: 양서원.
- 김정환, 황지희(2015). 대학평생교육의 운영전략과 과제 : 미국의 성인학습중심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3(4), 269-297.
- 김창엽, 성낙돈(20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장성 분석 방법에 대한 시론적 접근, 열린교육실행연구, 13, 3-28.
- 김희동(2011). 평생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과 학습자의 행동의도관계에서 기관몰입의 매개효과. 평생교육·HRD연구, 7(2), 23-49.
- 남정걸(1993). 사회교육행정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박은아(20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직 경험사례를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111-135.

- 박응희, 이병준(2007). 평생교육 시장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1(1), 139-156.
- 변정현(2006).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마케팅. *HRD연구*, 8(2), 37-70.
- 서보준, 서명환, 김우호, 이진열, 박희숙(2018). 평생교육경영론. 경기도: 공동체.
- 신은경, 이홍석, 현영섭(2010). 평생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 실행요인이 관계만족과 재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학연구*, 16(3), 101-126.
- 신은경, 현영섭(2021). 학습전이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동향: 1996~2020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HRD연구*, 23(3), 51-98.
- 신태진(1999).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적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17(1), 327-353.
- 심은비, 현영섭(2020). 비판적 HRD 연구동향 분석: AHRD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2005~2019)을 중심으로. *HRD연구*, 22(3), 89-117.
- 양인숙, 안덕근, 남영란, 한정은(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6(1), 117-149.
- 오홍석(2003). 제주시 평생교육 기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학회지*, 13(1), 105-139.
- 오혁진(2002). 평생교육경영학의 지향점과 연구과제. *평생교육학연구*, 8(1), 153-176.
- 오혁진(2021). 평생교육경영론 공익적 평생교육기관을 위한 경영의 실제 2판. 서울: 학지사.
- 우수명(2004). TP 사회복지 Program 개발과 평가. 서울: 인간과 복지.
- 윤기찬, 박혜영(2006). 지방정부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2(4), 47-71.
- 이길현(2016).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경영론. 서울: 한교원.
- 이만표(2003). 경인지역 평생교육기관의 경영특성과 성과와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9(1), 149-177.
- 이명희(2005).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177-201.
- 이병준(200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의 조직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연구*, 11, 155-168.
- 이수경(2001). e-Learning 정책 제도 및 운영 실태. *산업교육연구*, 8, 109-123.
- 이장익(2006). 평생교육기관 경영전략분석에 관한 SWOT 조사연구. *Andragogy Today*, 9(2), 151-171.
- 이향란(2015). 평생교육경영론. 경기도: 공동체.
- 이혜정, 최경애, 김세리(2009). 연구중심대학의 강의 질 향상 정책 및 전략 연구. *교육학연구*, 47(4), 145-174.

- 정기수(2009). 내부마케팅에 의한 대학평생교육기관 경영. *평생교육학연구*, 15(4), 299-325.
- 정민승, 최운실(2007).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3(3), 169-186.
- 정복임(202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현황 사례분석에 기반한 운영 혁신방안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7(4), 73-100.
- 지호준(2000). *알기쉽게 배우는 21세기 경영학*. 서울:법문사.
- 최나영, 신정원, 고용수(2021). 평생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3, 329-352.
- 최운실(2003). 평생교육 재정실태와 투자확대정책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2(1), 159-188.
- 최은수(2006).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재정구조 요소와 재정운영 기초 분석. *Andragogy Today*, 9(1), 67-84.
- 최은수, 배석영(2017). *평생교육 경영론*. 경기도: 양서원.
- 한석근(2014). 평생학습관 운영의 비용-효과성 분석 -전북지역 평생학습관 운영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4), 115-143.
- 현영섭, 권대봉(2007).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대상의 텔파이 조사에 기초한 평생교육기관경영의 변화 동향. *HRD연구*, 9(1), 1-26.
- 현영섭, 김경희(2008).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질과 학습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요인 분석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2), 31-59.
- 현영섭, 신은경, 김준희 (2021). 학습전이 성과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HRD연구*, 23(1), 1-32.
- Bateman, T. S. & Snell, S. A. (2002). *Management: Competing New Era (5th ed.)*. New York: McGraw-Hill.
- Courtenay, B. C. (1990). An analysis of adult education administration literature, 1936-1989. *Adult Education Quarterly*, 40(2), 63-77.
- Creswell, J. W., & Plano Clark, V.L. (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 Edition*. Sage Publications, L.A.
- Drucker, P. (1995). *Manag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 현영하(역). 비영리단체의 경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Fayol, H. (1949). *General and Industrial Management*. Sir Isaac Pitman & Sons, London.
- Gilley, J. W. & Egglund, S. A. (1992). *Marketing HRD within Organizations: Enhancing the Visibility,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Programs*. California: Jossey-Bass.
- Hyatt, James A., & Santiago, Aurora A. (1986). *University Libraries in Transi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 Ivy, J. (2001).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mage: a correspondence analysis approa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5(6), 276-282.
- Kettner, Peter M. (2002). *Achieving excellence in the management of human service organiz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 Kotler, P. & Fox, K. F. A. (1995). *Strategic Marketing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2n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Lewis, J. A., Lewis, M. D., Packard, T. & Souflee, F. (2001). *Management of human service programs, 3rd*, Belmont, CA: Brooks/Cole.
- Maringe, F. & Foskett, N. H. (2002). Marketing university education: the South African experience. *Higher Education Review*, 34(3), 35-51.
- Simerly, Robert, G. & Associates(1987). *Strategic Planning and Leadership in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Smith, D. H. & Offerman M. J. (1989). *The Management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논문접수일 : 2022년 02월 28일

논문심사일 : 2022년 03월 2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4월 18일

ABSTRACT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Lifelong Education Management: Centered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1999 to 2021

Younghee Le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ujin Ku**(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ungsup 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about lifelong education management in Korea, also this study reflects research's implication and guidance for further results. For the purpose, we collected 108 articles from 60 journals published in Korea. Then, we analyze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articles according to the criteria such as categories of management, research methods, publication year, type of journals, etc. We constructed a frameworks for trends analyses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Following are the frameworks we analyzed from 108 articles.

First of all, During 1st period(1999-2004) 10 of research papers were posted in regards of lifelong education, 2nd Period (2005-2013) 41 of studies were posted which familiarized lifelong education to public. 3rd Period (2014-2021) All published thesis were majority, research's enlargement and improvement stood out in the mean time.

Secondly, when looked at research methods, majority included quantitative research and rarely any qualitative studies nor literature studies were activated. Thirdly, research target institution focused on public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ore than 75%.

Fourthly, the research topics of the first period were lifelong learning supporting systems, programming, planning, and strategies, and in the second period, management factors such as marketing and evaluation were expanded and applied. In the third period, the combination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supporting systems, and management was further emphasized.

[Keywords] lifelong education management, research trends, Korean academic journals

[부록 1] 연도별 학문 교차분석

	1999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생교육학	0	1	1	3	1	7	2	3	3	1	2	1	0	4	4	0	1	1	3	0	4	42
%	0.0	0.9	0.9	2.8	0.9	6.5	1.9	2.8	2.8	0.9	1.9	0.9	0.0	3.7	3.7	0.0	0.9	0.9	2.8	0.0	3.7	38.9
교육학	1	1	0	2	1	0	4	0	1	2	4	1	1	0	3	1	5	2	2	3	2	36
%	0.9	0.9	0.0	1.9	0.9	0.0	3.7	0.0	0.9	1.9	3.7	0.9	0.9	0.0	2.8	0.9	4.6	1.9	1.9	2.8	1.9	33.3
비교육학	0	0	0	1	1	1	0	0	1	1	0	3	0	1	5	1	4	3	3	2	3	30
%	0.0	0.0	0.0	0.9	0.9	0.9	0.0	0.0	0.9	0.9	0.0	2.8	0.0	0.9	4.6	0.9	3.7	2.8	2.8	1.9	2.8	27.8
합계	1	2	1	6	3	8	6	3	5	4	6	5	1	5	12	2	10	6	8	5	9	108
%	0.9	1.9	0.9	5.6	2.8	7.4	5.6	2.8	4.6	3.7	5.6	4.6	0.9	4.6	11.1	1.9	9.3	5.6	7.4	4.6	8.3	100.0

[부록 2] 연도별 연구대상기관 교차분석

	1999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미제시	0	0	1	1	0	0	1	0	0	1	0	0	0	0	1	0	1	2	0	0	1	9	
%	0.0	0.0	0.9	0.9	0.0	0.0	0.9	0.0	0.0	0.9	0.0	0.0	0.0	0.0	0.9	0.0	0.9	1.9	0.0	0.0	0.9	8.3	
공공명생	0	1	0	3	2	4	0	1	4	0	5	2	0	5	3	0	6	1	5	5	5	7	54
%	0.0	0.9	0.0	2.8	1.9	3.7	0.0	0.9	3.7	0.0	4.6	1.9	0.0	4.6	2.8	0.0	5.6	0.9	4.6	4.6	4.6	6.5	50.0
민간명생	0	1	0	0	0	1	0	0	1	1	0	0	0	0	3	0	1	0	0	0	0	0	8
%	0.0	0.9	0.0	0.0	0.0	0.9	0.0	0.0	0.9	0.9	0.0	0.0	0.0	0.0	2.8	0.0	0.9	0.0	0.0	0.0	0.0	0.0	7.4
혼합기관	0	0	0	2	1	3	3	2	0	1	1	2	1	0	5	1	2	2	2	0	0	0	28
%	0.0	0.0	0.0	1.9	0.9	2.8	2.8	1.9	0.0	0.9	0.9	1.9	0.9	0.0	4.6	0.9	1.9	1.9	1.9	0.0	0.0	0.0	25.9
미해당	1	0	0	0	0	0	2	0	0	1	0	1	0	0	0	1	0	1	1	0	1	9	
%	0.9	0.0	0.0	0.0	0.0	0.0	1.9	0.0	0.0	0.9	0.0	0.9	0.0	0.0	0.0	0.9	0.0	0.9	0.9	0.0	0.9	8.3	
합계	1	2	1	6	3	8	6	3	5	4	6	5	1	5	12	2	10	6	8	5	9	108	
%	0.9	1.9	0.9	5.6	2.8	7.4	5.6	2.8	4.6	3.7	5.6	4.6	0.9	4.6	11.1	1.9	9.3	5.6	7.4	4.6	8.3	100.0	

[부록 3] 연도별 연구방법 교차분석

	1999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양적연구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2	빈도 2	빈도 6	빈도 2	빈도 3	빈도 2	빈도 2	빈도 5	빈도 4	빈도 1	빈도 4	빈도 8	빈도 1	빈도 5	빈도 6	빈도 4	빈도 3	빈도 5	빈도 66
	% 0.0	% 0.9	% 0.0	% 1.9	% 1.9	% 5.6	% 1.9	% 2.8	% 1.9	% 1.9	% 4.6	% 3.7	% 0.9	% 3.7	% 7.4	% 0.9	% 4.6	% 5.6	% 3.7	% 2.8	% 4.6	% 61.1
질적연구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1	빈도 2	빈도 1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0	빈도 1	빈도 2	빈도 0	빈도 2	빈도 0	빈도 1	빈도 1	빈도 3	빈도 16
	% 0.0	% 0.0	% 0.0	% 0.0	% 0.9	% 1.9	% 0.9	% 0.0	% 0.9	% 0.0	% 0.9	% 0.0	% 0.0	% 0.9	% 1.9	% 0.0	% 1.9	% 0.0	% 0.9	% 0.9	% 2.8	% 14.8
문헌연구	빈도 1	빈도 1	빈도 1	빈도 4	빈도 0	빈도 0	빈도 3	빈도 0	빈도 2	빈도 2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2	빈도 1	빈도 2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0	빈도 20
	% 0.9	% 0.9	% 0.9	% 3.7	% 0.0	% 0.0	% 2.8	% 0.0	% 1.9	% 1.9	% 0.0	% 0.0	% 0.0	% 0.0	% 1.9	% 0.9	% 1.9	% 0.0	% 0.9	% 0.0	% 0.0	% 18.5
혼합연구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2	빈도 1	빈도 1	빈도 6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9	% 0.0	% 0.0	% 0.0	% 0.0	% 0.9	% 0.0	% 1.9	% 0.9	% 0.9	% 5.6
합계	빈도 1	빈도 2	빈도 1	빈도 6	빈도 3	빈도 8	빈도 6	빈도 3	빈도 5	빈도 4	빈도 6	빈도 5	빈도 1	빈도 5	빈도 12	빈도 2	빈도 10	빈도 6	빈도 8	빈도 5	빈도 9	빈도 108
	% 0.9	% 1.9	% 0.9	% 5.6	% 2.8	% 7.4	% 5.6	% 2.8	% 4.6	% 3.7	% 5.6	% 4.6	% 0.9	% 4.6	% 11.1	% 1.9	% 9.3	% 5.6	% 7.4	% 4.6	% 8.3	% 100.0

[부록 4] 연구내용별 연구영역 교차분석

	프로그램 개발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기획/전략	조직화	평가	지원체계	기타	합계
평생교육학	빈도 10	빈도 17	빈도 15	빈도 19	빈도 15	빈도 8	빈도 31	빈도 15	빈도 15	빈도 145
	% 2.5	% 4.3	% 3.8	% 4.8	% 3.8	% 2.0	% 7.8	% 3.8	% 3.8	% 36.7
교육학	빈도 31	빈도 3	빈도 1	빈도 10	빈도 16	빈도 6	빈도 24	빈도 26	빈도 17	빈도 134
	% 7.8	% 0.8	% 0.3	% 2.5	% 4.1	% 1.5	% 6.1	% 6.6	% 4.3	% 33.9
비교교육학	빈도 37	빈도 0	빈도 13	빈도 11	빈도 10	빈도 2	빈도 21	빈도 11	빈도 11	빈도 116
	% 9.4	% 0.0	% 3.3	% 2.8	% 2.5	% 0.5	% 5.3	% 2.8	% 2.8	% 29.4
합계	빈도 78	빈도 20	빈도 29	빈도 40	빈도 41	빈도 16	빈도 76	빈도 52	빈도 43	빈도 395
	% 19.7	% 5.1	% 7.3	% 10.1	% 10.4	% 4.1	% 19.2	% 13.2	% 10.9	% 100.0

[부록 5] 연도별 연구내용교차분석

	1999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프로그래밍	빈도	0	1	0	4	2	3	5	2	4	2	3	0	4	6	2	11	7	11	3	5	78
	%	0.0	0.3	0.0	1.0	0.5	0.8	1.3	0.5	1.0	0.5	0.8	0.0	1.0	1.5	0.5	2.8	1.8	2.8	0.8	1.3	19.7
재무관리	빈도	0	0	0	3	1	6	1	0	0	0	2	0	3	0	0	0	3	0	0	1	20
	%	0.0	0.0	0.0	.8	.3	1.5	.3	0.0	0.0	.5	0.0	0.0	.8	0.0	0.0	0.0	.8	0.0	0.0	.3	5.1
인사관리	빈도	0	0	0	1	0	1	1	0	4	3	0	2	0	13	0	0	3	0	0	0	29
	%	0.0	0.0	0.0	0.3	0.0	0.3	0.3	0.0	1.0	0.8	0.0	0.5	0.0	3.3	0.0	0.0	0.8	0.0	0.0	0.0	7.3
마케팅	빈도	0	0	0	0	0	6	3	1	2	4	4	0	0	8	0	1	1	5	2	3	40
	%	0.0	0.0	0.0	0.0	0.0	1.5	0.8	0.3	0.5	1.0	1.0	0.0	0.0	2.0	0.0	0.3	0.3	1.3	0.5	0.8	10.1
기획 및 전략	빈도	1	2	0	2	1	6	4	0	3	0	7	1	0	4	0	2	1	1	3	3	41
	%	0.3	0.5	0.0	0.5	0.3	1.5	1.0	0.0	0.8	0.0	1.8	0.3	0.0	1.0	0.0	0.5	0.3	0.3	0.8	0.8	10.4
조직화	빈도	0	2	0	0	0	0	0	3	0	2	4	0	2	0	0	1	1	0	0	1	16
	%	0.0	0.5	0.0	0.0	0.0	0.0	0.0	0.8	0.0	0.5	1.0	0.0	0.5	0.0	0.0	0.3	0.3	0.0	0.0	0.3	4.1
평가	빈도	0	0	0	1	6	2	2	4	1	3	2	2	0	11	0	7	8	6	6	4	76
	%	0.0	0.0	0.0	0.3	1.5	0.5	0.5	1.0	0.3	0.8	0.5	0.5	0.0	2.8	0.0	1.8	2.0	1.5	1.5	1.0	19.2
평생학습 지원체계	빈도	2	1	0	3	0	2	1	0	2	2	5	0	0	1	4	10	1	7	3	8	52
	%	0.5	0.3	0.0	0.8	0.0	0.5	0.3	0.0	0.5	1.3	0.0	0.0	0.0	0.3	1.0	2.5	0.3	1.8	0.8	2.0	13.2
기타	빈도	0	0	3	2	1	1	5	0	1	1	2	0	0	2	1	4	1	5	5	9	43
	%	0.0	0.0	0.8	0.5	0.3	0.3	1.3	0.0	0.0	0.3	0.5	0.0	0.0	0.5	0.3	1.0	0.3	1.3	1.3	2.3	10.9
합계	빈도	3	6	3	16	11	27	22	10	16	17	16	3	19	45	7	36	26	35	22	34	395
	%	0.8	1.5	0.8	4.1	2.8	6.8	5.6	2.5	4.1	4.3	4.1	0.8	4.8	11.4	1.8	9.1	6.6	8.9	5.6	8.6	100.0

[부록 6] 연구내용별 연구대상기관 교차분석

	프로그래밍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기획/전략	조직화	평가	지원체계	기타	합계
빈도	9	1	4	5	4	1	2	2	7	35
%	2.3	0.3	1.0	1.3	1.0	0.3	0.5	0.5	1.8	8.9
빈도	36	14	2	19	18	5	43	34	22	193
%	9.1	3.5	.5	4.8	4.6	1.3	10.9	8.6	5.6	48.9
빈도	3	0	12	5	4	1	1	3	2	31
%	0.8	0.0	3.0	1.3	1.0	0.3	0.3	0.8	0.5	7.8
빈도	22	4	10	6	13	8	25	6	10	104
%	5.6	1.0	2.5	1.5	3.3	2.0	6.3	1.5	2.5	26.3
빈도	8	1	1	5	2	1	5	7	2	32
%	2.0	0.3	0.3	1.3	0.5	0.3	1.3	1.8	0.5	8.1
빈도	78	20	29	40	41	16	76	52	43	395
%	19.7	5.1	7.3	10.1	10.4	4.1	19.2	13.2	10.9	100.0

[부록 7] 연도내용별 연구방법 교차분석

	프로그래밍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기획및전략	조직화	평가	지원체계	기타	합계
빈도	58	14	15	25	20	10	60	19	21	242
%	14.7	3.5	3.8	6.3	5.1	2.5	15.2	4.8	5.3	61.3
빈도	7	2	9	5	8	2	11	9	11	64
%	1.8	0.5	2.3	1.3	2.0	0.5	2.8	2.3	2.8	16.2
빈도	7	4	4	6	12	4	3	18	8	66
%	1.8	1.0	1.0	1.5	3.0%	1.0	0.8	4.6	2.0	16.7
빈도	6	0	1	4	1	0	2	6	3	23
%	1.5	0.0	0.3	1.0	0.3	0.0	0.5	1.5	0.8	5.8
빈도	78	20	29	40	41	16	76	52	43	395
%	19.7	5.1	7.3	10.1	10.4	4.1	19.2	13.2	10.9	100.0